



VIP장례타운-대촌농협, 장례문화·농산물 소비촉진 '맞손'

무등일보 입력 2026.08.30. 14:08 수정 2026.08.31. 11:10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농촌 조합원에 특별 편의
로컬푸드 판로 확대 온힘



VIP장례타운과 대촌농협이 조합원 복지 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VIP장례타운(대표이사 고병희)과 대촌농협(조합장 이환형)은 지난 28일 장례 관련 상호 협력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촌농협 조합원 등이 VIP장례타운을 이용할 경우 농촌지역 조합원을 위한 특별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단순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촌농협은 ‘우리 농산물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VIP장례타운을 통해 적극 구매·이용하고, 장례식장 내 취약계층 돌봄사업 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고병희 VIP장례타운 대표이사는 “지역민과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에도 힘을 보탬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장례문화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은 “이번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VIP장례타운은 연중무휴 장례상담을 진행하며, 대촌농협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장례 관련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저작권자 © 무등일보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 취소